

「가나안 이야기」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온

샬롬! 예루살렘에서 문안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에 문안드립니다. 한국은 봄기운의 따사로운 햇볕을 맞이하겠지만 이스라엘의 5월은 무척 뜨겁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건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서 보내는 모든 계절 속에는 귀한 교훈이 담겨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서 성경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몇 차례 기회가 되어 유대 광야와 네게브 사막을 방문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그 곳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나무 종려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뜨거운 햇볕을 묵묵히 견뎌가며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다 자라면 열매 맺는 나무로 또 무성한 가지는 사막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종려나무처럼 이 땅에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묵상해 봅니다. 비록 삶의 정황과 환경이 척박하고 메말라도 그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또 자라나 열매를 맺는 나무로, 무성한 가지로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 유월절과 늘사랑교회 성도 이스라엘 방문 이야기

지난 4월 달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이었습니다. 보통은 교회력의 부활절을 같은 시기에 맞지만 이번에는 유대력에 윤달이 끼어 있어서 부활절보다 한 달 가량 늦은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때문에 유대력을 기준으로 유월절을 비롯한 모든 성경 절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을 휴일로 보내게 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좀 다르지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보통 2~3주 가량 유월절 방학을 갖게 됩니다. 지난 텃에는 이 유월절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G.T.I를 다녀오곤 했는데 이번 유월절은 한국의 모교회(늘사랑교회)의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방문이 있어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 교회를 떠나왔는데 다시 이곳에서 그리운 얼굴들을 뵈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교회 식구들과 7박 8일의 시간을 함께 하며 이 땅의 구석구석을 밟고 또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을 이해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던 것 같아 현장 사역자로서 더할 것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늘사랑 식구들이 떠나고 유월절 끝자락에서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다보면 가끔은 그리운 환경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시간 범위 내에 바다가 있고 또 광야가 있고 숲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차를 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얼마든지 많은 시간 드리지 않고도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처럼 동역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이 주는 행복감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5월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활력을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한동안 G.T.I(트레일 전도) 사역을 나가지 못했는데 5월부터는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조선시대 권사인들처럼 이 땅 구석구석을 찾아 다니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 복된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가는 길마다 닿는 발걸음 마다 귀한 만남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손 모아 주십시오.

■ 베두윈 마을 이야기

지난 번 기도제목으로 함께 나섰던 베두윈 마을 강제 철거 문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한 달 여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마을 자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갈 경우 마을 사람들의 거처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정부와의 원만한 협상이 이뤄져 베두윈 마을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달 중순부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남자 아이들을 포함해서 두 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이라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차츰 안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월 20일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리고에 소풍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야외 활동을 못 나가서 인지 소풍을 간다는 말에 벌써부터 아이들 모두 들떠 있습니다. 이번 소풍이 가뜰이나 마을 철거문제로 심한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오고가는 길 그리고 물놀이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그 자리에 서있는 나무



절기와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



늘사랑의 이스라엘 방문



유월절 방학 및 가족소풍



베두윈 아이들

「 기도제목 」

“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1:21)

1. 다시 시작하는 G.T.I 사역 가운데 열심을 주시고 또 열매가 맺히도록
2. 요압 아저씨 가정과 야곱(마아안)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3. 베두원 마을 철거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와 대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4. 타마르 프로젝트(베두원 아이들 교육 사업)의 재정비와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5월 20일 베두원 아이들 소풍(안전, 배움, 즐거움)을 위해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온)
- 외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 프로젝트
- 외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Rev. JAESUK JUNG

※ 연락처 :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jaesuk96@gmail.com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 **CP123456789KR**)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